

SUNBO FAMILY vol.60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2009. 01. 0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09년 기축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여는 시무식이 2009년 1월 2일 시행되었다. 결의문 제창, 대표이사 및 상임고문 강평, 혁신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진 이 행사에서 작년에 보여 주었던 매출 30% 신장의 신화를 올해도 다시 한번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시무식 2009신년사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기축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의 새해 새아침 동해바다를 붉게 태우며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면서 선보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한해가 되게 도와 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개인의 금년도 목표달성과 회사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있다면 가정의 평화와 함께 계획한 모든 일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선보가족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해 첫 출근하는 선보가족 모두가 밝고 건강한 얼굴, 자신감 넘치는 정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선보가족의 얼굴에서 올해는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전부에서 초과달성하리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선보는 전년도 매출 1,480억원으로 33% 매출 신장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VISION2012" 목표달성의 기반 조성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동 갈사조선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북 군산산업단지에 공장부지 12,000평을 분양받았습니다. 군산에는 금년 상반기에 종합의장 공장건설을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장가동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년 실적대비 33% 증가한 2,000억원 매출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몰아닥친 원자재와 유가폭등에 이어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세계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 선박발주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기 발주된 선박 취소와 함께 선가는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조선 산업의 경우 세계 150위 중 국내 30개사의 30%를 워크아웃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6개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가 기수주한 물량 일부가 발주 취소되었으며 발주취소 사태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주할 제품의 단가하락과 함께 수주경쟁은 어느 해 보다 치열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입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지혜가 어느 해보다 필요합니다. 모래

알 같은 개인플레이 보다 선보가족 모두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 불굴의 투지와 도전적인 사고로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여 우리 스스로 정하여 결의한 경영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로 살아남아 어느 해 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풍요롭고 넉넉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는 선보인이 됩시다.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총무식 때 지적한 다섯 가지입니다. 무사고 365일 달성, Event 절대준수, 제품완성도 100%, 생산성향상 20% 공장효율 20% 증대, 효율적인 Process 완성입니다. 5 가지 사항을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실천한다면 금년도 경영목표는 반드시 초과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팀별, 공장별 사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여기에 모이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정하여 다함께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팀별, 생산 하부조직까지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기본을 지키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사업계획의 세부 실천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하부조직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주기를 설정하여 세부실천 사항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Stern Tube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에 성공하여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다각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법개발은 일상 업무입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회사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팀별·임원별 각자 맡은 책임과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창사 후 22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모두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편성하여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포용으로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잘한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포상의 기회를 확대 하겠으나 잘못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책임과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일할 맛 나는 직장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픈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는 종업원의 복지향상의 질을 더욱 더 높여나갔습니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전임직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VISION2012"의 완성과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하나 되어 기축년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보공업/선보유니텍/선보하이텍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금 식

2009년 생산성 향상 20% 초과달성 다짐!!



우리 회사는 지난 29일 본사 교육장에서 "2009년 사내협력사 및 직영생산팀 실행 계획 발표회"를 갖고 내년도 생산성 향상 20%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내년도 전사 경영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공장별 실제

실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다대 1, 2, 3공장, 구평공장, 영도공장 등 5개 공장에서 상임고문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임원 및 생산팀장, 사내협력사 소장이 참석했으며, 획기적인 공법 개선과 율등한 생산기량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20%를 초과달성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생산성 향상 20% 달성 결의 서약서" 전달식도 있었다.

매출 2,000억, 생산성 20% 향상, 생산리드타임 20% 감소



우리 회사는 "VALUE JUMP - SUNBO"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2월 19일, 22일 이틀에 걸쳐 본사 교육장에서 상임고문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40여 명의 전사 임원 및 팀장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전사 사업계획 발표회 및

경영목표 달성 결의 대회"를 갖고 2012년까지 육상 및 해양 모듈 유닛 초우량 상징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발표는 각 부문별로 2008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2009년도 상세 사업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부분별 목표 및 업무간 협조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또한 2009년도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문 낭독 및 결의 서약서 전달을 통해 목표초과달성을 위해 개인과 조직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9 신년사

장명우 상임고문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다 같이 축하합니다.

지난해 말, 새해는 경영환경이 어떠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열심히 준비했고, 또 꼭 그렇게 하자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선보의 2009년 첫 문을 여는 시무식에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라톤 얘기입니다.

백리가 넘는 길을 달려서 누가 1등 하느냐 하는 경기입니다. 경기를 치르고 나면 선수의 체중이 3kg 이상 빠진다는 힘든 경기입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이 바쳐집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크게 보면 실력이 결정하겠지만 면밀히 분석하면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고개를 넘거나 체력이 다한 후에 얼마나 정신력으로 마지막 스피트를 하느냐가 성패를 결정 합니다.

금년 세계 경제와 우리 조선산업을 보면 누가 더 도전적으로 누가 더 사력을 다하느냐가 개인이든 회사이든 생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우리 선보와 선보가족은 여건이 어려울 때 남과 더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훈련해 왔고, 그렇게 준비하였고, 그렇게 다짐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결혼 기도 이야기입니다. 소련의 어느 가정에서 결혼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세 번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기도를 한번 하라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을 때 기도를 두 번 하라 했는데 왜 결혼한다하니 기도를 세 번하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생활은 전쟁보다도 항해보다도 더 큰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평생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도, 또는 세 번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도전과 희망의 기축년 출발 2009년! 매출 2,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우리 선보 가족은 어떻습니까?

800여명의 사원이 한마음이 되어 사장을 중심으로, 각공장 임원·공장장을 중심으로, 각 소장·팀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 해야만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최고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똑 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의 반복이지만 우리들 세 번, 네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무식을 갖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선보가족 여러분!
2009년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누구와도 차별화된 최고가 됩시다.
전사원이 서로 돕고 지도하며
하나가 되고 최고가 됩시다.

한해 내내 건강하고
웃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임고문 장명우



2009년 전사 경영목표 SunB.

관점	구분	2008년 실적	2009년 목표	비고
재무	매출	1480억	2000억	35% 향상
	수주	2005억	2400억	20% 향상
고객	검사합격율	98.10%	100%	-
	제품완성도	92.70%	100%	-
프로세스	생산성향상	7% 향상	20% 향상	-
	EVENT준수율	(신규)	100%	-
학습성장	안전재해율 (연천인율)	17.1명	무재해	-

2009 비전

내실안정과 지속성장의 해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 투자유치 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 부지 입주가 확정되어 현대중공업 및 핵심협력업체 13개 기업과 군산시 주관 하에 군산시청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문동신 군산시장과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어떠한 불편이나 애로사항 없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회사는 이로서 2009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와 동북아 전진기지 확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갈사만 매립지 개발사업자 선정

우리회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 및 갈사만 매립배후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07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하동군수, 각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투자 협약식에서 '갈사만 매립지 및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2010년까지 조성되는 용지 중 7만평에 대한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해양 육상 Module 및 신사업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9 신년사

부사장 최상식

꿈과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자



희망의 기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매월 인

상되는 원자재가, 유가인상 연이어 터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는 금융경색과 함께 세계경기는 한파의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선보인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고 매출 33% 신장이라는 괄목할 성과를 달성한 선보가족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조선경기 지표는 전 항목에 걸쳐 급격한 하향곡선과 함께 조선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한파의 골은 그 어느 해보다 깊고 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불황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희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희망은 원

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슬기를 가진 선보인 모두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 꿈과 희망은 이루어 집니다.

부문, 공장별로 한마음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웠고 또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서명식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선보가족 모두의 밝은 미래와 장래를 보장받기 위해 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전정신으로 이제 기축년 항해를 시작하는 뱃고동이 5대양 6대주에 울려 퍼지도록 뱃고동을 울리면서 우리가 설정

한 목표달성을 위한 힘찬 항해를 위해 희망의 노를 힘차게 저어 봅시다.

경영지원담당 전 임직원은 선보가족 모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항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기적소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필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후생복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항해도중 희망의 끈을 놓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급선과 등대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기축년 올 한해 선보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함께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 신년사

선보유니텍(주) 김양태 전무

기본에 충실하자

지난해는 당사로서는 매출 1,500억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전사원이 합심단결한 한해였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및 해운 시장 침체의 여파(계약취소, 연기, 발주 지연, 선가하락 등)가 조선업계를 강타하고 있어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의 각오는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산업부문, 상업부문, 금융부문이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혼란은 자본가들의 탐욕에 의

한 금융파생상품, 주식, 외환매매 등으로 부를 착취(이동)하는 데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정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산업부문을 등한 시 했기 때문이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기본에 충실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입니다. 훗카이도에서 큰 태풍이 불어 사과가 거의 떨어져 버려 폐농에 가까웠을 때 한 농부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들을 수확 생에게 팔아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모두가 힘들어 할 때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면 금년도의 매출목표(2,000억)도 무난히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1) 기본에 충실하자.
2) 바로 지금, 여기(當今此地)에 최선을 다하자. 로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선보가족 여러분들의 견승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2009 신년사

다대2공장 정호경 상무이사

2공장을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존경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견승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맞닥뜨려 조선경기 또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었습니다. 다대2공장 또한 신규공장으로 2008년도 잦은 조직 변경과 안전사고, 매출실적 저하 등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2009년 다대2공장은 매출 420억 목표달성, 생산성 향상 20%달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일약 도약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생산체계 확립 및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

이하여 우리 다대2공장은 선보 최고의 공장 또한 세계속의 조선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보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9 신년사

최홍렬 상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도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날짜에 따라 어제와 오늘, 지난 해와 새해로 구분하여 새로운 태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여 희망찬 미래를 안고 시작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여 한가지 다짐을 해 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으며, 영업 일선의 체감은 치열함을 넘어 생존경쟁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현실이 밝지 않지만 선보가족 모두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간다면 즐거운 하루와 성과있는 2009년을 보내게 될 것 입니다.

새해에도 몸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2009 신년사

선보유니텍(주) 강보영 이사 새롭게 준비하는 '선보'의 참모습..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 기축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활기가 넘쳐나는 희망에 찬 한해가 되고, 선보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보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돌이켜보면 2008년 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IMF 사태보다 더 어렵다는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 많은 시련의 터널속에서 질게 드리워진 안개속을 헤쳐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통 뒤의 희망과 도약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 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며,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거듭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기계발 통하여 핵심 인재로 거듭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2009년! 새해에도 우리모두의 바람과 희망처럼 안정과 화합 속에서 선보가 더욱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선보'의 참모습을 그려

보고 또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09 신년사

설계담당 공성문 이사 긍정의 힘을 믿고 우직하지만 완벽한 회사를 만들자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축년에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올해는 소띠해, 소는 우직하며, 근면성실하지만 느린 천간지자 중 하나입니다. 속도가 지배하는 사회와 대대가 되겠죠. 그러나 우직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소리가 "빨리빨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해야 하고, 음식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빨

리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속도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후생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뒤쳐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도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 순간에 어떤 목표 지점까지 올라서기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그 순간부터는 계속 퇴보를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모두가 무한경쟁과 성장 위주

의 사회입니다. 전세계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구태의연한 기득권의 집착으로 위기를 좌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언에 대마불패란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대마불패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과음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고, 드리면서

도 완벽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모든 선보가족 여러분들과 더불어 소원이 성취되고 가내평안하여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9 신년사

총무기획담당 김성규 이사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선보는 매출 1,500억원에 육박하는 연간 30%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BSC(Balanced Score Card, 전략적 균형성과 지표)를 도입하여 장·단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관리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BSC는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의 관점에서 학습과 성장, 프로세스, 고객, 재무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주요지표들이 정상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미달되면 세부적인 내용과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시장과 고객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찾아내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장 단계별로 경영의 형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전략에 따른 인적자원과 재정적인 지원 그리

고 권한이 잘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선보가 지속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내적으로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찾고 투자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원 단위별 조직체계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지식경영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개인과 기업의 성과는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능력의 공명으로 나타납니다. 즉 가치관, 태도, 능력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수치만 낮아도 성과는 매우 낮아집니다. 임직원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로 능력을 향상하여 선보가 해양 및 육상 부문의 모듈전문 초우량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일꾼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 신년사

다대3공장 박기제 이사 제품의 일류화와 일류 브랜드를 확보하자

친애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2009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선보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에 국제원자재 파동, 조선의 1,000여척 계약해지, 미국 자동차의 구제금융, 일본 도요타의 적자, 자동차 산업의 작업중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보가족들이 말은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올해는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선보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의욕적인 성장목표를 전사가 합심하여 매출 2,000억과 생산성 향상 20% 등 사업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저희 다대3공장은 매출 150억과 생산성향상 20%를 목표로 정하고 또한 실행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원이 합심하여 목표를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것입니다. 저희 3공장은 앞으로

제품의 일류화와 일류브랜드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STRAINER, SILENCER 제작의 선도 기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키워 나갈것을 약속 드립니다.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일수록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선보가족들도 경쟁력을 확보하여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 신년사

한봉화 이사 중요한 미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자

사우 여러분! 희망찬 2009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고유가와 세계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목표를 무난히 달성함으로써 명실공히 Vision "SB-2012"를 향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불철주야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선보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따르는 성장통 중 하나인 생산공정의 불안정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의 제고 등 내실화를 통한 질적인 성장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올 한해도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한 걸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올 한해 지향하는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첫째, 각자가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생산 공정을 안정화 할 것이며 둘째, ERP 활성화를 통한 원가 / 품질관리를

체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사상생의 협력과 공법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불굴의 의지로 수많은 역경을 헤쳐 오셨던 자랑스러운 선보를 이룩하신 사장님, 그리고 함께한 선보 가족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찬사를 올립니다. 저는 조금 늦게 승선을 하였습니다만, 운항을 잘하여 여러분과 함께 편하고, 빨리 풍

요한 미래에 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힘차게 전진 합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경영혁신 2년차 “선보형 관리혁신 정착과 현장혁신 체질화로 성공적인 경영혁신체계 활성화 수행”

2008년 한해동안 우리회사는 경영혁신 추진 2년차를 맞이해 선보형 관리혁신과 현장 혁신 운영으로 성공적인 경영혁신체계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먼저, 현장혁신부분에서는 5S와 TPS를 우리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선보 현장 혁신" 추진 및 운영으로 자발적인 "문제점 발취-개선-포상" CYCLE을 정착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월간 현장혁신 발표회를 통해 그 달에 개선완료한 BEST PRATICE에 대한 공유와 차월 현장혁신 계획을 발표하는 절차를 정례화시킴으로써 전년 대비 10% 이상 향상된 현장혁신 개선 실적과 더불어 10억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경영혁신 활성화기 2년차로 지금까지의 선보 현장혁신인 눈에 보이는 상태나 형상 개선 위주에서 작업방법/공법의 개선 등 부가가치 창조적인 현장혁신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관리혁신 부분에서는 선보형 BSC를 통해 ▲명확한 중장기 성장목표 및 가이드 라인 설정과 이의 제도적 추진체계 정착, ▲객관적이며, 투명한 성과평가체계 도입으로 동기부여 및 조직활성화 촉진, ▲건전한 경쟁문화 조성 및 생산적인 조직체계 구축, ▲고수익 및 실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 전략 실현 등 "실질 가치에 근거한 경영관리체계"를 정착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전년대 달리 "개인핵심업무수행서"와 "생산팀별 실행계획서"를 통해 BSC를 개인 단위 및 사내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내년에는 좀 더 정밀도 높은 BSC 구현으로 과정과 결과의 조화를 이룬 공정한 성과관리와 개인~팀~부문~전사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극대화, 조직의 중장기 경영전략이나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현장혁신 (눈에 보이는 상태/형상 개선)	⇒	2009년 현장혁신 (방법의 개선, 부가가치의 창조)
(전사에서 계획 및 추진)	⇒	(공장별로 계획 및 추진)

2008년 관리혁신 (조직의 목표관리)	⇒	2009년 관리혁신 (조직 및 개인, 사내협력사 목표관리)
(결과 중심)	⇒	(과정과 결과 조화)

1 2008년 BSC기반 사업계획 수립 및 발표회 실시

BSC의 도입과 더불어 명확한 중장기 성장목표 및 가이드 라인 설정으로 중기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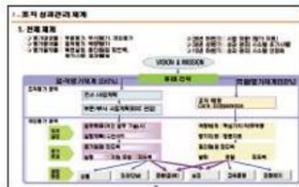
2 2008년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목표달성 워크샵 개최

매월 부문별 임원이 직접 목표대비 실적을 분석하고 발표함으로써 부문간 건전한 경쟁문화 조성 및 생산적인 조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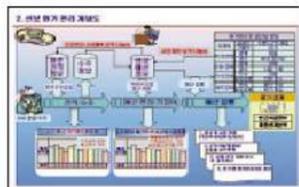
3 선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며, 투명한 성과평가체계 도입으로 동기부여 및 조직활성화 촉진 기반 마련



4 선보 실행예산 시스템 구축

고수익 및 실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 전략 실현



5 SB2012 중기계획 검토 및 수정보완

최신 산업환경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SB2012 중기전략 수정보완 → 기존사업 내실경영강화 및 신사업 기반확보 전략 마련



6 2009년 전사 사업계획 수립

2008년도 실적 분석 및 SB2012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경영전략 수립 및 목표설정
→ 경영슬로건 : VALUE JUMP UP - SUNBO
→ 전사 매출목표 상향 : 1,800억원 → 2,000억원
→ 생산성 향상 : 10% → 20%



7 2009년 부문별 사업계획 및 개인핵심업무 수행서 수립

2009년 전사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로 분임토의 등을 통해 상세사업계획 및 개인핵심업무수행서 작성 → 일방적 TOP-DOWN 목표를 위한 계획 수립이 아닌 개인, 팀장, 임원이 합의한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8 2009년 부문별 사업계획 TOP 검토회

부문별 핵심분야에 집중하는 경영전략 및 목표 수립 여부와 구체적 실행계획 방안 검토 및 코멘트 실시 → 5대 핵심프로세스의 구체적 수행을 위한 핵심 KPI 지정 (매출달성율, 생산능율, EVENT 준수율 등)



9 2009년 상생협력 한마음 간담회 개최

PC'S, 철의장, 후처리 업체 등 사외 협력사와 09년 매출 목표인 2,000억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와 원활한 수급관리 할 것 결의



10 2009년 생산성 향상 20% 달성을 위한 사내협력사 및 직영생산팀 실행계획 수립

2009년 전사 목표인 생산성 향상 20% 달성을 위한 각 사내협력사 및 직영 생산팀별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



11 2009년 전사 사업계획 발표회 개최

각 부문별로 2008년 실적을 분석하고, 2009년도 상세 사업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부문별 목표 및 업무간 협조사항 공유



12 2009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개최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통해 개인 및 조직이 2009년도 목표 초과달성에 매진할 것 다짐



13 2009년 부문별 사업계획 공유회 개최

부문별 담당 임원이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설명함으로써 구성원 전원이 함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



14 2009년 생산성 향상 우수팀 시상 및 포상금 수여

08년 전사 생산성 향상 목표인 10%를 초과달성하고, 전년대비 월등한 생산성 향상 실적을 거둔 우수 생산팀에 대한 시상 및 포상금 수여



15 2009년 사내협력사 및 직영 생산팀 실행계획 발표회 개최

전사 경영목표인 생산성 향상 20%의 초과달성을 위한 공장별 생산 최일선에 있는 생산팀장 및 사내협력사의 실제 실행계획을 공유 및 달성 결의



2008 한 해를 정리하며



이날 한 해를 정리하며 실적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팀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우수사원상을 시작으로 모범상, 고객만족상, 우수협력사상, 개발상, 경영혁신상 등을 시상했으며 특히 경영혁신상은 대상, 금상, 은

상, 동상으로 세분화되어 시상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종무사를 통해 "제 2도약 우리 모두의 목표인 VISION 2012,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결의와 함께 열정, 불굴의 도전정신

으로 첫 항해를 시작한 무자년 올 한해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도 있어 2009년에는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3시 본사 식당에서 종무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선보결의문 제창, 선보인의 행동강령 제창과 더불어 상임고문의 격려사와 송년사,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8 종무식

수상자

경영혁신상 대상 (오백만원)

영도공장 임원 전무이사 김양태
구평공장 임원 이사 강보영

경영혁신상 금상 (부상 백만원)

본사 사업기획 부장 김청욱
영도공장 공장장 부장 이청수

경영혁신상 은상 (부상 오십만원)

1공장 공장장 부장 임영삼
본사 구매팀 부장 최동배
목포공장 공장장 차장 박원석

경영혁신상 동상 (부상 삼십만원)

영도공장 선관관리 과장 이주희
구평공장 설계팀 차장 임우택
2공장 팀장 조경선
3공장 설계팀 과장 최재호

개발상 (부상 오십만원)

본사 설계팀 부장 장호길

모범상 (부상 이십만원)

본사 재무인사 대리 한태영
구평공장 설계팀 대리 김경수
본사 영업팀 사원 김미란
영도공장 선관관리 대리 김태경
2공장 품질보증 대리 이현우
목포공장 팀장 정봉주
1공장 선임팀장 김동섭

우수 협력사상 (부상 오십만원)

영도공장 한사선박 소장 이대환
구평공장 명성산업 소장 김주한

고객지원상 (부상 삼십만원)

본사 고객지원팀 선임팀장 심성섭

우수사원상 (부상 십만원)

사업기획팀 이경식팀장 외 34명

회사 소식

행복영도 장학회 기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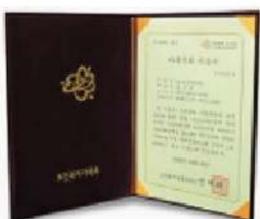
우리 회사가 영도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 행복영도 구현을 위한 "재단법인 행복영도 장학회"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기부 승낙서를 행복영도 장학회 설립 재단에 제출하였다. 장학회 기금으로는 영도공장의 이름으로 2,000만원,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100만원 기부했다.

이번 장학회 기금 전달은 회사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지에

이행된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이와 같은 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 소식

본사, 정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기업'에 선정



우리 회사가 평소 대표이사의 소신에 따라 가족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지난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2008년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되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탄력적 근무제, 출산, 양육, 교육 지원, 부양

가족 지원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며 해당 항목에 대한 것을 점수로 환산해 기준 내에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사원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봐 준 것 같다. 이번 인증은 선정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을 떠나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금 더 직원

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가족친화기업 선정에서 대기업 5곳과 공기업들과 더불어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우리 회사는, 영남권에서도 유일한 인증 수상 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 신청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번 선정에 대해 "앞으로도 가족의 사랑, 기업의 배려와 열정, 사회적 관심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직장가 가정, 조직과 개인이 함께 커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8 총무식

상생을 위한 모험 한마음 간담회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16일 남태평양호텔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PCS 철 의장 후처리 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해 간담회를 가졌다.

상임이사와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협력체 대표 답사, 간담회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본사가 마련한 식사를 함께하며 한 해 동안 협력업체들의 노고를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동시에 새해 매출 목표인 2000억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와 원활한 구매계획과 수급계획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결의를 다졌다.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그 동안 선보 긴급 물량을 차질 없이 지원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대표이사의 말을 들은 한 협력업체 대표는 "매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모기업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품질과 납기에 더욱 신경을 써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대표이사의 인사에 답하는 한마디를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었다.



회사 소식

1공장 생산관리 심성섭 팀장 및 영도공장 박상계 과장 근로자상 수상



우리 회사 1공장 생산관리 심성섭 팀장은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지원 유공 표창을 수상 하였다. 이는 우리 회사가 2008년 우수 기업 대상을 수상한 것과 더불어 개인으로서 비중있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심성섭 팀장은 평소 소신과 근면성실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해왔으며, 특히 물류부 특성상 잦은 외근

및 출장에도 단 하루도 지각, 결근 없이 회사 생활을 하여 회사에서 적극 추천을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영도공장 박상계 과장은 부산시로부터 우수 근로 모범상을 받았으며 평소 동료애와 애사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선보가족 모두는 이번에 표창을 받은 두 분에게 축하와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회사 소식

이웃과 직원과 함께하는 연말연시



지난 연말 우리 회사는 회사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대동사무소, 구평동사무소, 영도동사무소 외에 목포 등 여러 곳이며 회사이름으로 100만원, 대표이사 개인 성금으로 1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특히 영도는 영도구청에 행복영도 장학재단 기부와 함께 이루어져 그 의미가 두 배가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선보공업(주) 및 선보유니텍(주) 설계부 일동이 자진 성금을 모금하여 대대동 사무소와 구평동 사무소에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을 성금 하는 등 연말연시에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또한 경영지원부문 직원들도 108만원의 성금을 대대동 사무소에 전달 하였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08년 매출목표달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과

사내 협력사 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연말 선물을 지급 했다. 선물은 패션형 전자레인지로 비롯해 총 7종이며 이 중 마음에 드는 1가지를 선택하여 연말에 맞춰 지급했다. 지난 연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표이사는 1월 1일 고향에 대한 향수병과 명절에 문을 여는 식당이 드물어 식사를 해결 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고 조출한 저녁 오찬 자리를 마련하였다.

외국인 직원들은 종교나 관습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이들을 위해 오리고기를 준비 하였다. 대표이사는 오찬 자리에서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우리 선보를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고향처럼 편안하고 정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시 보는 Review-2008

지난 한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선보. 다가 온 새해의 밑거름이 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지난 한 해 선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월별 주요사항들을 통해 알아보자.

1. 경영혁신의 '礎石(초석)'은 다졌다. 이제는 선보만의 '색(색)'을 찾아야 할 단계 (1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경영혁신을 시작한 지 4개월 남짓 되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경영혁신 수차례의 교육에 걸쳐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좋지 않았던 결과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선보만의 경영혁신을 이뤄낼 예정이다. 도입단계인 4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무분별한 도입과 급작스런 도입은 혁신 스트레스를 가중화시켰고,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 끝에 올해 우리 회사는 전반적인 단계의 안전수칙과 함께 해당 분량의 실무교육으로 꼭 필요한 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혁신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따로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실무교육 속에 혁신이 묻어나게 '현장혁신 체계'를 진행할 것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활동이 활발하거나 우수했던 팀 혹은 개인에게 포상했던 상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수상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성과에 따라 적은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해 상의 가치를 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는 팀 혹은 개인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보다 나은 결과를 낳고, 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 경영혁신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혁신 방법이 현장에 혁신리더를 두는 시스템으로 변화했다. 5개의 공장을 본사, 영도, 구평 셋으로 분리했던 것에서 조금 변형해 본사, 영도와 구평 공장을 합하여 정호경, 김양태 상무 두 사람의 혁신리더를 두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 관리자 위주로 한 층 더 현장 혁신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경영혁신 도입 결과 '득(득)'이 있었다면 '실(실)'도 있었던 지난 한 해, 내 몸에 맞는 옷은 지키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된 지금, 올해 우리 회사 경영혁신의 귀추가 주목된다.

2. 선보 시스템즈 조인식 거행 (2월)



지난해 1월에는 선보공업(주)와 에젤(주), 그리고 ㈜지에스 코퍼레이션 간에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합작회사명은 "선보시스템즈(주)"로 하였으며, 설립 목적은 Oil & Gas를 비롯한 각종 Plant에 들어가는 Process Equipments의 국산화를 추구하고, Engineering 전문 업체 설립

을 통한 해외 Packager와의 연대를 추진하여 해외 기술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그동안 육상 및 해상 플랜트 분야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3. HTU (HFO TREATMENT UNIT) 납품 (4월)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건으로 HTU 7SETS를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HTU는 이동식 발전설비로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설비를 갖추기 힘든 세계각지의 오지지역에 육상운반으로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재설치가 가능하여 PLANT 설비 공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자가 발전 시스템이다. HTU는 디젤엔진 3~4 세트로 구성된 PPS(PACKAGED POWER STATION)과 배의 기관실중 PURIFIER ROOM에 해당하는 보조기로 구성되어 있다. HTU의 가장 큰 특징은 컨테이너에 모든 설비를 넣어 제작되어 운반 및 설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4. 선보 복지시설 확충 (6월)



Graduation

본사 직원들이 다대공장 세 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가 확충됐다. 차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하기에 애매한 거리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직원들의 고충이 일부 해결된 셈이다.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한 직원은 "차를 타고가기에는 가깝고 그렇다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애매한 거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있었다. 5대라는 자전거를 확충시킨 뒤에는 각 공장들을 이동할 때 이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간단한 서류나 사소한 부품을 자전거에 실을 수도 있어서 편리했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를 이용하니 연료 절약도 되고 이동하는 데 간편하고, 게다가 운동까지 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2008년 연말 '가족친화기업' 선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5. 최금식 대표이사, '부산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7월)



'부산 중소기업인 대상'은 1999년 시작되어 기업건실도, 사업성, 수출실적, 기술개발실적, 사회봉사 활동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지평가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지난 7월1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2007년 전년 대비 7%의 순이익 증가와 낮은 부채비율 등 탄탄한 재무 구조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상을 수상 하게 되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며,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내 유료도로 3개소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6. 삼성 1763호선 FPSO PIPE RACK UNIT 수주 (10월)



우리 회사는 향후 10년의 생존전략의 품목 중 하나인 Offshore 부문의 수주 및 생산 정책에 적극 동참, 해양 부문에서 국내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삼성중공업 1763호선 FPSO PIPE RACK UNIT를 수주하는 것을 계기로 폭넓은 성장을 할 발판을 마련했다.

Duplex SUS(Stainless Steel)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강종으로 점차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강종으로, 기존의 Austenitic Stainless Steel에 Cr의 함량을 더 높이고 약간의 Mo를 추가한 강종으로 기존 SUS보다 강도 면이나 부식 방지능력이 훨씬 뛰어나 이번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하합니다!

생일

이주열 (1/4)

이주열 (1/30)

이현수 (1/4)

총무기획 박성우 (1/27)
김유리 (1/5)

본사설계 고상현 (1/18)
이재광 (1/5)
이철훈 (1/27)

다대공장

나상 (1/2)

조수희 (1/10)
김정민 (1/9)
이도희 (1/20)
로프 (1/21)
이창면 (1/5)
임인혁 (1/1)
정성남 (1/2)
현정환 (1/21)
김수한 (1/23)

다대2공장

최수현 (1/4)

조경선 (1/18)

서원수 (1/16)
정성규 (1/27)
김종민 (1/10)
이해목 (1/30)
무라드 (1/16)

이승훈 (1/14)
김태영 (1/20)

다대3공장

채규만 (1/10)

이주일 (1/18)
장수복 (1/17)
장기봉 (1/2)

일사

이사 최홍렬 (2003.1/1)

설계2팀 박규태 (2007.1/1)

생산관리 백갑수 (2000.1/3)

고객지원 전철민 (2004.1/1)

다대공장

김병호 (2001.1/1)

오정용 (2001.1/1)

이영갑 (2001.1/10)

이영동 (2001.1/3)

김복자 (2001.1/1)

김목만 (2007.1/1)

송옥례 (2007.1/1)

지용천 (2001.1/1)

이희종 (2005.1/10)
장형구 (2002.1/2)
이상하 (1999.1/1)
배희진 (2006.1/2)

다대2공장 김계원 (2007.1/13)

다대3공장 채규만 (2003.1/9)